

# 耽羅居人 李邦翼의 〈漂海歌〉에 대한 研究

成 武 慶\*

— 차      례 —

1. 濟州人 李邦翼과 燕巖의 만남
2. 〈漂海歌〉 관련자료의 검토
3. 〈漂海歌〉를 통해 본 李邦翼의 기행과 체험
4. 맺음말을 대신하여

## 1. 濟州人 李邦翼과 燕巖의 만남

燕巖과 그 주변인물들은 所謂 '연암그룹'이라는 新生語를 만들어낼 만큼 實學派 文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목을 끌어왔으며 이제는 다소 그 윤곽이 드러나 있기도 하다. 그런데 濟州사람이고 武人이었던 李邦翼과 연암의 만남은 생소하리 만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의 만남은 '연암그룹'과는 전혀 무관한 독특한 만남이며, 漢字文化圈內的 세련된 文章家와 한자문화에 덜 익숙한 武將의 만남으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글이 「燕巖集」, 卷6, 別集에 실려 있는 〈書李邦翼事〉이다.

이방익은 正祖 20년(1796), 9월 21일 濟州에서 당시 서울에 있던 그의 아버

\* 成均館大學校 國語國文學科 博士課程

지에게 覲親을 가다가 大風을 만나 漂流한다. 죽을 고비를 수차 넘기고 10월 6일 중국 臺灣府 앞바다 澎湖諸島의 한 섬에 표착, 이후 대만부, 廈門府, 福建, 浙江, 江南, 山東 등 諸省을 거쳐 北京에 이르고 遼東을 경유해, 正祖 21년(1797), 閏 6월에 환국한다. 이때 正祖는 사건의 보고서인 備局書를 받아보고 그 일행 가운데 이방익이 堂上朝官임을 알고서 邦翼을 특별히 불러 경험한 바 山川風俗을 묻고 史官에 명하여 그 일을 기록하게 했는데 이는 「正祖實錄」과 「承政院日記」에 남아있다. (正祖 21년 丁巳 閏六月 戊午條)

연암은 그 해 나이 61세로 7월에 沔川郡守로 辭陞차 熙政堂에 入侍했는데, 正祖가 引見하여 이방익의 일을 글로 지어 바치도록 했다. <書李邦翼事>는 이러한 어명에 따라 지은 글이다. 연암은 이 때의 일을 기록하기를 '같이 배에 탔던 8인 가운데 오직 邦翼만이 文字를 깨우쳤으나 겨우 노정만을 기억할 뿐이고, 또 기억을 더듬어 口奏하는데 왕왕 실수가 있던 차'에 자신이 회정당에 입시켰으며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방익의 일이 심히 기이하나 文字를 잘 하지 못함이 애석하다. 네가 마땅히 一編을 撰進함이 좋겠다"고 하시니 명을 받들고 물러나와 그 일을 취하여 약간 證正을 加했다'고 썼다.

濟州人 李邦翼과 燕巖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졌으며, 중국을 체험한 이방익의 일을 撰進하는 데는 17년전(1780) 「熱河日記」를 썼던 연암이 책임자라고 正祖는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체험을 변변히 文字化시킬 줄 몰랐던 이방익이 國漢文 혼용체로 歌辭 <漂海歌>를 남겼으니 자못 흥미있는 일이다.

## 2. <漂海歌> 관련자료의 검토

<漂海歌>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雅樂部歌集」 1책과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樂府」 上책에 그 자료가 전한다. 이 두 자료는 철자상의 차이를 제외하고 그 내용에 있어 첨가, 누락이 전혀 없이 일치를 보이고 있다. <漂海歌>가 처음 활자화된 것은 1914년 「青春」 창간호에 '넛글 새맛'이란 부제로 실린 것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 실리게 되었는지 아무 설명이 없으나 그 내용은 위 두 자료와 차이가 없다. 또 최근 북한의 학술자료 개방으로 선보인

고정옥·김삼불 주해 「가사집」<sup>1)</sup>과 정렬모 편주 「가사선집」<sup>2)</sup>에 <漂海歌>의 주석작업이 되어 있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漂海歌>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최초의 관심표명은 姜銓燮과 朴晟義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姜銓燮은 「樂隱別曲의 研究」에서 「弄丸齋歌詞集」에 52句만 필사된 <표해가>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sup>3)</sup> 朴晟義는 「樂府研究」에서 <漂海歌>의 내용을 간단히 해설했다.<sup>4)</sup> 그 뒤 安春根이 「文學思想」에 <鴻罹歌>라는 가사작품을 소개했는데<sup>5)</sup> 같은 책에 李相寶가 「絕島流配의 恨」을 발표하여<sup>6)</sup> <鴻罹歌>의 작자 李邦翊과 <漂海歌>의 작자 李邦翼을 동일인으로 취급했다.

<漂海歌>에 대한 구체적인 학술논의는 「韓國言語文學」(1981)에 동시에 실린 姜銓燮의 「李邦翼의 <漂海歌>에 對하여」<sup>7)</sup>와 최강현의 「홍리가(鴻罹歌)의 지은이에 대하여」<sup>8)</sup>가 발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강현은 <鴻罹歌>의 작자 李邦翊과 <漂海歌>의 작자 李邦翼이 다른 사람임을 고증을 통해 밝혔다. 최강현은 계속하여 「한국 해양문학 연구」,<sup>9)</sup> 「漂海歌의 지은이를 살핌」<sup>10)</sup> 등의 논문을 통해 <漂海歌>의 작자 고증과 이 작품의 성격을 기행문학과 해양문학으로 다루었는데, 「漂海歌의 지은이를 살핌」이란 논문에는 <漂海歌> 관련자료

- 
- 1) 고정옥·김삼불 주해 : 《가사집》, 평양·국립출판사, 1955. (남한발행처 및 발행년도: 여강출판사, 1991.)
  - 2) 정렬모 편주, 《가사선집》, 조선문학 예술 총동맹 출판사, 1964. 註1), 註2)의 참고문헌 가운데 ‘잡지 <청춘> 창간호’가 들어 있으므로 이것을 기본 자료로 했음을 알 수 있고 이 중 註2)는 몇 구가 삭제되어 있음을 밝힌다.
  - 3) 姜銓燮, 《樂隱別曲의 研究》, 忠南大大學院, 1965. 油印本 및 《語文研究》第6輯, 1970. 수정논문.
  - 4) 朴晟義, “樂府研究”, 《高麗大六十周年紀念論文集》, 1965.
  - 5) 安春根, “鴻罹歌考”, 《文學思想》45호, 文學思想社, 1976.
  - 6) 李相寶, “絕島流配의 恨”, 註5)와 같은책.
  - 7) 姜銓燮, “李邦翼의 <漂海歌>에 對하여”, 《韓國言語文學》, 20집, 형설출판사, 1981.
  - 8) 최강현, “홍리가(鴻罹歌)의 지은이에 대하여”, 註7)과 같은책.
  - 9) 최강현, “한국해양문학연구-주로 “표해가”를 중심으로-”, 《省谷論叢》12집, 1981.
  - 10) 최강현, “漂海歌의 지은이를 살핌”, 《語文論集》23호, 고려대학교, 1982.

인 〈李邦仁漂海錄〉<sup>11)</sup>(한문 필사본)을 발굴, 그 全文을 소개하여 논의될 보다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 자료는 처음 세상에 謠傳하던 것을 花峇 鄭上舍<sup>12)</sup>란 이가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沙汀洞主란 사람이 다시 느낀 바 있어 필사한다고 한 것으로, 이방익이 龍灣(義州)에 이르렀을 때 府尹 沈某가 취조하는 문답내용의 글이니 이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해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漂海歌〉와 〈書李邦翼事〉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 다소 있어 중요한 방증자료로 생각된다. 그리고 보면 〈漂海歌〉는 관련자료가 다소 있다고 하겠다.

본고는 기본자료인 가사 〈漂海歌〉와 〈書李邦翼事〉, 그리고 〈李邦仁漂海錄〉 및 「實錄」, 「承政院日記」 등의 자료를 검토해 보고 특히 作者 李邦翼에 관련된 사실들을 살펴 보겠다. 우선 〈漂海歌〉의 作者에 대한 연구는 몇 분의 先學, 특히 姜銓燮과 최강현에 의해 자세히 논의되었으나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다시 정리해 본다.

- 耽羅居人 李邦翼은 世代로 武科로서 / 이 몸에 이르러서 武科出身 또한  
 였다.
- 聖恩이 罔極하야 忠壯將 職名써고 / 受由어더 觀親하니 丙辰九月 念日이  
 라.

〈漂海歌〉의 서두이다. 이방익은 자신의 출신, 이름, 직명, 승선동기 등을 호기있게 펼쳐 보인다. 이로써 작품이해에 필요한 작자의 대강은 드러난 셈이다. 좀더 고증해 보자면, 〈漂海歌〉에 ‘正祖時人’이라 했고, 〈李邦仁漂海錄〉에 ‘丁丑生人’이라 했으며 또 같은 기록에서 義州府尹의 질문에 ‘小人年今四十有一’이라 한 것과, 〈書李邦翼事〉에 역시 ‘年四十一’이라 했으니, 귀국한 丁巳年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이방익은 英祖 33年(1757), 丁丑生이란 사실이 확인된

11) 여기서 李邦仁이라 한 것은 翼의 잘못이다. (최강현 註10)과 같은 책, p.71, 註7) 참조)

12) 上舍는 생원이나 진사를 달리 부르는 말이며, 花峇과 이를 필사한 沙汀洞主란 사람이 누구인지 미상이다.

다.<sup>13)</sup> 이방익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漂海歌〉와 〈書李邦翼事〉, 〈李邦仁漂海錄〉에 나오며, 〈書李邦翼事〉에는 방익의 아버지 前五衛將 光彬도 長崎島(나가사키)에 표류했다가 돌아온 흥미있는 일화까지 기록했다. 이들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李邦翼이 濟州出身이며 世代로 武科出身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점이다. 이것을 보강해 주는 것은 표류 전 이방익의 관직이 忠壯將이었다는 사실이다. 忠壯衛는 英祖 때 설치, 高宗 때 폐지한 군대조직으로 先代에 武功이 있거나 戰死한 사람의 자손으로 조직하여 궁중에番禺게 한 군대이며, 忠壯衛將은 정3품의 무관으로 형식상 당상관에 속한다.<sup>14)</sup> 이방익의 경우 아버지가 五衛將(임란뒤 정3품, 수효 15명)이었고, 방익이 환국했을 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생존하고 있었으므로 쉽게 관직에 나갈 조건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 28세 때인 正祖 8년(1784. 甲辰)에 武科에 登第하고, 正祖 10년(1786. 丙午)에 守門將을 거쳐, 이듬해 正祖 11년(1787. 丁未), 武兼宣傳官으로 丁未年 刺行時에 侍衛에 들며, 正祖 15년(1791. 辛亥)에 元字宮의 첫돌을 맞아 대궐 안에서 활쏘기를 하여 으뜸의 기록으로 忠壯將에 임명되는 特別教旨를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에서는 그가 蔭官도 蔭官이려니와 武將으로서의 자질도 겸비했던 인물임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정작 〈漂海歌〉를 짓게 된 표류의 일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가 40세 되던 正祖 20년(1796. 丙辰) 9월 21일 표류, 41세로 다음 해 丁巳 閏 6월 4일 義州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의 표류기점이 모호하다. 즉 연암은 〈書李邦翼事〉에서 '將觀其父於京師 舟遇大風'이라고 했으니, 이방익은 濟州에 있다가 서울로 가려고 배를 탔다는 말이 되는데, 姜銓燮은 이 연암의 문장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得受由於京師 欲觀其父而歸于濟州'라고 서술했어야만 옳았을 것이다<sup>15)</sup>고 하여 서울서 제주로 가다가 大風을 만났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최강현 역시 이방익이 '충장장으로 서울에 머물러 있다가 고향인 제주에

13) 姜銓燮, 註7과 같은책. 英祖 32年(1756); 최강현: 註10)과 같은책. 영조 38년(丁丑: 1757)을 바로 잡는다.

14) 《古法典用語集》, 法制處, 1979. p.812. 충장위 및 충장위장 참조.

15) 姜銓燮, 註7)과 같은 책. p.101.

계시는 부모님께 뵈오려 갔다가 일행 7인과 함께...<sup>16)</sup>라고 하여 姜銓燮과 견해를 같이 했다. 그 이유는 연암의 기록보다도 <漂海歌>의 서두에 '忠壯將 職名 띄고 受由어더 觀親하니...' 부분을 더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忠壯將의 직명은 서울 궁중에서 쫓을 들며, 게다가 휴가 얻어 가는 것이니 당연히 서울서 제주로 향한다는 논리다. 일면 설득력이 있으나, 직접 이방익을 만나 사실을 기록해 임금께 올리는 글(<書李邦翼事>)의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만은 없지 않을까? 혹, 이방익은 당시 非番으로 世居地 濟州에 내려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까? 「承政院日記」의 기록을 보면, 이방익 일행이 경기감영에서 原籍官으로 넘겨지고, 그 때 방익이 前에 忠壯將이었다는 것이 보고되어, 正祖는 '招致慰諭'하고 '急於還鄉'케 하라고 명하고 해당관청에 분부하여 相當職을 주라고까지 했다. 이 때 이방익에게 五衛將의 望單子를 정했으나, 그것이 輪番之職이므로 어떻게 上來入番시키겠느냐고 하여 全羅監營 中軍과 相換케 하였다. 이방익은 이 때의 일을 <漂海歌>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며 감읍해 한다.

○聖上の 命을 바다 相府로 드리오니 / 어느덧 傳敎하사 五衛將 시기시고  
 肅拜를 못하여서 全州中軍 相換敎旨 / 차례로 맞기시니 聖恩도 罔極할사

肅拜도 못하였으니 실제로 오위장 노릇 한 번 못했어도 職名은 걸친 것이다. 조선시대의 벼슬은 實務를 보지 않고도 望單子에 오르면 그 관직을 품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상의 이유로 筆者는 燕巖의 文章이 모호한 것이 아니며, 정확한 표현으로 당시 이방익은 忠壯將의 직책이 非番이었거나 望單子에만 오른 職名이었다고 보고 제주에서 内地로 오다가 표류했다고 본다.<sup>17)</sup>

또 <漂海歌>의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다.

16) 최강현, 《韓國紀行文學研究》, 一志社, 1982, p.260.

17) 燕巖도 <書李邦翼事>에서 '邦翼之召見也 以壯遊勞苦 特除全羅中軍 以榮其歸在昔'라고 했다.

○이 벼슬 瓜滿하고 故土로 도라가서 / 父母의 孝養하고 지낸 實事 글만드려  
豪壯한 漂海光景 後進에게 니르과져

이 문맥으로 보아 <漂海歌>는 귀국 직후가 아닌 일정시간이 흐른 뒤에 지은 것이며, 故土는 제주를 가리키므로 제주에서 지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작자 문제에 있어서 <鴻罹歌>의 작자 李邦翊과 <漂海歌>의 작자 李邦翼이 동일인이 아니란 점은 최강현이 이미 밝힌 바 있지만, 부기하면 李邦翊은 正祖 6년(1782)에 中樞都事였으며 正祖 8년(1784)에 유배가사인 <鴻罹歌>를 짓는데, 李邦翼은 正祖 8년(1784)에야 겨우 武科에 登第하니 이로써 두 인물이 다른 인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강현이 '우리 문학사상에 조선 시대 武士 출신 작가가 새로이 한 사람 많아지게 되었음'을 밝힌 것은 정당하다.

이상이 <漂海歌>의 작자 李邦翼에 대한 생애의 전부이며 그의 죽은 때는 알 수 없다.

### 3. <漂海歌>를 통해 본 李邦翼의 기행과 체험

바다에서 표류해 멀리 외국에까지 밀려가 가까스로 살아나서 고국으로 돌아온 기행과 체험은 당시의 경험세계 가운데서도 특이한 것이었고 世間の 耳目을 집중시킬만한 충분한 자극적 요소를 갖추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을 기술하는 것은 체험론적 진술에 의거해야 하므로 일련의 의미있는 행동의 시간적 서술인 서사적 양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李邦翼의 경우 '보여주어 알린다'는 작가의식이 일어났을 때, 그는 문학적 표현원리를 歌辭라는 기존의 문학양식에서 찾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이미 한문학적 소양과는 체질적으로 멀었고 또 기행과 체험의 감상을 가사라는 양식에 담아내던 관습적 전통에 충분히 익숙해 있었다고 봄이 옳을 듯싶다. 이방익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 제시되는 이질적 경험을 개방적으로 보고하려 했고, 나아가 표현의 대상을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상에 의해

환기된 자신의 감흥도 함께 전달하고자 했다. 이러한 요구를 함께 충족시켜 줄 수 있었던 표현양식이 가사였으므로 이방익이 가사라는 기존의 문학양식을 채택한 것은 자연스럽다.

〈漂海歌〉는 내용과 분량으로 보아 사실의 장편화를 보이는 후기 가사의 면모를 지닌다. 전기 가사의 3·4, 4·4라는 안정된 율격에서 벗어나 2·2, 2·4, 2·3, 5·4 등의 변형된 율격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4음 4보격의 율격적 장치는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것이다. 위의 율격은 唱化에 필요한 율격이 아닌 기억과 환기를 용이하게 해 주는 장치로 玩讀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며, 그 율격으로 하여 일반 산문과는 또 다른, 긴장감과 리듬감을 띠므로 해서 여전히 율문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漂海歌〉는 총 604句로 9개월 17일간 -연암의 고중에 의하면 水路는 제외하고 一萬二千四百里라고 한다-의 상당히 긴 노정에 비해 매우 간결하게 처리되어 있음을 본다. 그 긴 노정에는 느낌도 많았을 터인데 간결하게 진술하다 보니 서사성이 훨씬 강화된 작품이 되었다. 여행기간의 전 과정을 기본 즐거리로 하고, 주인공의 행동과 체험의 객관적 묘사가 주로 되어 있으면서도, 감정을 은연중 노출하여 전편에 빠른 속도감을 유지한다.

연암의 〈書李邦翼事〉는 전체 노정을 11개 부문으로 나누어 '邦翼奏曰...'하는 이방익의 진술과 '按...' 하는 연암 자신의 證正 기술이 반복되며 燕京前山東까지의 노정을 기록했다. 〈漂海歌〉는 제주 앞바다에서부터 入侍謝恩까지의 쏘 노정이다.<sup>18)</sup> 〈漂海歌〉에 나타난 기행과 체험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뉜다. 앞 단락은 제주 앞바다에서 표류하여 중국 팽호도에 표착하기까지의 15일간의 표류 체험이며, 뒤의 단락은 팽호도에 도착하여 의주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행과 견문으로 작품의 ⅔를 차지한다. 그러나 의미있는 주인공의 행동이 객관적 묘사로 박진감 있게 그려진 부분은 앞 단락이다. 〈漂海歌〉에 표현된 이방익의 체험과 기행 중 특징적인 몇 부분만 살펴보기로 한다.

이방익은 丙辰 九月 念日 李有甫 等 일곱 船人과 함께 一葉漁艇에 올라타고 제주를 출발한다.

18) 路程은 생략한다. 최강현, 註17과 같은책, p.259 참조.



- 風帆을 눕히달고 바람만 조차가니 / 遠山에 빛진달이 물가운데 빛쳐였다.  
靑紅錦緞 千萬匹을 匹匹히 햇셔린듯 / 하늘인가 물빛인가 水天이 一色이  
라  
陶然이 醉한 後에 船板치며 즐기드니
- 西北間 一陣狂風 忽然이 이어나니 / 泰山갓흔 눕흔물결 하늘에 다हत고나  
舟中人이 慌忙하야 措手할길 잇을소냐 / 나는새 아니어니 엇지살기 바라  
리오 ... (중략) ...  
一生一死는 自古로 例事로대 / 魚腹속에 永葬함은 이아니 冤痛한가  
父母妻子 우는 擧動 싱각하면 목이멘다

바다 한 가운데서 大風을 만난 급작스런 사태의 돌발을 두 대조적인 분위기로 표현하여 표류 당시의 당혹스러움과 처참한 심경을 극대화시켰다. 이후 곧 일엽어정에 몸을 싣고 높은 풍랑에 이리저리 흘러다니다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 죽기는 自分하나 飢渴은 무삼일고 / 明天이 感動하사 大雨를 나리시매  
뚝딴고 우러러서 落水를 먹음으니 / 渴한것은 鑛定하나 입에서 성에나  
네

또 5,6일이 지난 뒤 멀리 바라다 보이는 三大島를 발견하고 日本인가 생각하여 물에 닿으려는 순간 바람형세가 급변하여 다시 물결에 浮沈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묘한 일이 일어난다.

- 하늘을 부르즈져 죽기만 바라더니 / 船板을 치는소리 귀가에 들니겨늘  
물결인가 疑心하야 蒼々이 나가보니 / 자넌은 검은고기 舟中에 뛰여든다  
生으로 토막잘라 八人이 노나먹고 / 頃刻에 끈을목숨 힘입어 保全하니  
皇天에 주신젠가 海神에 도용인가 / 이고기 아니려면 우리엇지 살엇스리

船板에 뛰어든 커다란 물고기를 生으로 토막내어 8인이 나눠먹는 장면이야말로 표류의 극한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대목이다. '뚝딴고 우러러서 落水를 먹음으니'와 '生으로 토막잘라 八인이 노나먹고'의 장면은 〈書李邦

翼事)와 <李邦仁漂海錄>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표해사실 기록의 중심 내용이다. 체험의 문학이 아니고선 그 감동이 느껴질 수 없는 생생한 표현이다.

이후 어떤 섬에 표착하여 낯선 異國人을 만나는 장면에서는 <漂海歌>와 다른 산문기록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書李邦翼事>에는 표현도 없고 <李邦仁漂海錄>에 ‘八人卽下船登岸’이라고만 했는데 <漂海歌>에서는 ‘八人の 손을잡고 北岸에 괴어올나 / 驚魂을 鎮定하고 탕던배 도라보니 / 片片히 碎碎하야 어대 간줄 어이알리’로 표현하고 있다. 표착 당시의 심경이 ‘片片히 碎碎한’ 배의 묘사에 담겨 있다.

異國人을 만났을 때 다른 일행들이 生死를 모를 바라고 두려워하는데, 이방 익은 丁未年 刺行 때 武兼을 지낸 사람이라, 그 때 본 中國人の 의복제도와 異國人の 의복제도가 같음을 보고 곧 자신이 중국에 도착했음을 안다.

○네비록 지저귀나 語音相通 못하리라 / …(중략)… / 飢渴이 滋甚하니 잊  
지하면 通情하리  
입버리고 배주드려 주린形狀 나타내니 / 米飲으로 觀한後에 저진衣服 말  
니우네  
恩慈한 저情眷은 我國인들 더할손가

목숨만 살아나도 감지덕지할 터인데 게다가 후한 대접을 받았으니<sup>19)</sup> 이후 계속 ‘臨別握手眷眷 有不忍離別之意’란 표현이 자주 보일 만 하다.

그런데 앞 단락에 해당하는 15일간의 표류가 끝나고 나서는 ‘돛터안고 우러러서 落水를 먹음으니’와 ‘舟中에 뛰어난 고기 生으로 토막잘라 노나먹던’ 상황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여유있고 한가한 여행자의 모습으로 뒷 단락은 가득 차 있다. 표현 가운데 ‘구경은 조커니와 客愁가 새로와라’ 또 ‘黃菊丹楓 百鳥聲이 遠客愁心 돕는고나’ 하는 표현은 말뿐이며, 山川風俗을 한가로이 즐기는 여유있는 모습이 시종일관 계속된다.

19) <書李邦翼事>: ‘每日 給米飲一器 鷄膏一器 又給 香砂六 君子湯兩時’라고 진술했고 이 내용은 <李邦仁漂海錄>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었다.

○女人衣服 볼작시면 唐紅치마 草綠당衣 / 머리에 五色구슬 花冠에 얹켜잇  
고 / 허리에 黃金帶는 노리개가 자아졌다  
金釵에 緋緞옷을 즐즐이 써엿스니 / 艷艷한 姿態度는 天下에 無雙이라

이처럼 한가로이 異國女人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기도 하고, 이들 일행이 가는 곳 마다 '餞送하는 行者飲食 眼前에 가득'하고, 轎子타고 다니며, 荊州府에서는 다음과 같은 호방한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荊州府로 드러가니 / 綠衣紅裳 무리지어 樓上에서 歌舞한다. ... (중략) ...  
錢塘水 푸른물에 彩船을 매엿는데 / 朝鮮人 護送旗가 蓮꽃우에 번득인다.  
皓齒丹唇 數三美人 欣然이 나들마자 / 纖纖玉手로 盞드러 술勸하니  
鐵石肝腸 아니어니 엇지아니 즐기리오

또 燕京에 이르러서는 '禮部로 드러가서 速速治送 바랏더니' 며칠 뒤 皇帝는 '온갖구경 다한後에 本國으로 가라'는 말을 내려주니, 이에 이방익은 '이 아니 즐거오냐 우습이 절로난다'고 하며 太平車를 타고 山海關, 萬里長城을 두루 돌아 '鴨綠江을 바라보고 護行官 離別한다.' 풍랑을 만나 목숨을 겨우 보전했던 고난과 너무도 대조적이다.

燕巖은 <書李邦翼事>에서 이방익의 체험에 대한 총평으로 '지금 방익이 만 리를 꿰뚫은 것은 혹 들어보지 못한 것인즉 곧 세계 울타리 안이 태평함을 가히 볼 수 있다.'<sup>20)</sup>고 했다. 이 말은 곧 <漂海歌>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표해 이후의 이방익의 노정이 매우 순탄했음을 지적한 말이라 하겠다. 연암은 또 덧붙여 '魯認의 뒤로 멀리 떠다닌 자는 마땅히 방익으로 첫째를 삼아야 할 것이다.'<sup>21)</sup>라고 했다. 魯認은 임진왜란 때 포로로 일본에 끌려갔다가 탈출, 南蕃國을 거쳐 中國 각지를 떠돌다 燕京에 도착하여 때마침 와있던 우리 使行員들을 만나 3년여에 걸친 여정 끝에 故國에 돌아온 당대의 희한한 체험자였다. 그의 『錦溪日記』는 유명하거니와 연암이 魯認을 소개하며 '여러 명사들과의

20) <書李邦翼事> '今邦翼貫穿萬里 未之或聞則 宇內之昇平可見矣'

21) <書李邦翼事> '魯認之後遠遊者 當以邦翼爲首'

이별시가 지금도 그의 집에 남아 있다'<sup>22)</sup>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錦溪日記」를 보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보다 앞서 成宗 때 崔溥도 제주에 敬差官으로 가 있다가 아버지의 喪事를 전해 듣고 羅州로 향하던 중 표류, 중국에 도착했으나 왜적으로 오인받아 몽둥이까지 맞으며 고생하다가 돌아와 「錦南漂海錄」을 지은 일도 있다. 李晳光도 「芝峰類說」에서 이 책을 언급하고 있고, 더우기 崔溥의 체험기는 國文本으로도 남아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방익을 비롯한 이들의 파란만장한 여정과 체험은 당대인의 세계인식을 넓히는 데 자극이 되고, 〈李邦仁漂海錄〉을 필사한 沙汀洞主란 이가 말한 것처럼 '未嘗不擊節而太息'의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방익은 자신의 체험을 '天下에 危險한 일 지내노니 快하도다'고 하여 호방한 武將기질로 〈漂海歌〉를 마무리했다. 이는 朝鮮後期(고종 3년, 1866) 士大夫였던 洪淳學이 그의 使行歌辭인 〈燕行歌〉에서 생경스럽고 놀랐던 중국체험을 '中原 생각하면 依依한 一場春夢인가 하노라' 하여, 이질적 경험 앞에서 당황했던 심정을 마무리 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사뭇 대조적이다.

한편 이 〈漂海歌〉가 1914년 「青春」 창간호에 '벚꽃 새맛'의 부제로 실린 이유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1910년대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으로 전국토가 무단정치의 폭압 하에 신음하던 시기였다. 「青春」誌는 무단정치 하의 정신적 사상적 공백과 암흑기에 신세대의 젊은층에게 사상적 영향을 크게 주었던 잡지로, 교육과 문화계몽을 통한 민족주의 운동의 성격을 띠어 계몽지·교양지의 성격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잡지 발간은 崔南善이 혼자 도맡다시피 했으니 〈漂海歌〉의 게재도 최남선이 했으리리 믿어지며, 추측컨대 최남선은 〈漂海歌〉가 갖는 초반부, 시련을 극복하는 내용의 계몽성과 호방한 武人氣질의 작품성을 높이 평가하여 이 작품을 활자화한 듯 싶다. 계몽적 목적성에 의해서건, 민족문화의 올바른 계승을 위해서건, 1910년대에도 오늘날에도 〈漂海歌〉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22) 〈書李邦翼事〉 '諸名士別詩 至今藏于其家'

#### 4. 맺음말을 대신하여

앞서도 밝혔지만 이방익의 아버지는 五衛將을 지냈던 李光彬이란 사람인데, 그도 일찌기 과거시험을 보려고 바다를 건너다가 표류하여 日本의 長崎島에 표착했었다. 한 일본인 의사가 집으로 데려가 자기 집의 孫이 굶어지려 함을 간절히 말하며 아름다운 딸의 남편이 되어 주기를 累千金과 함께 간청했으나 이를 뿌리치고 돌아왔다는 흥미로운 짧은 일화를 <書李邦翼事>에서 볼 수 있다.

연암은 이 일을 기록하면서 '그 父子가 멀리 異國에 표류하여 떠돈 것 역시 가히 기이하다'<sup>23)</sup>고 했다. 崔溥도 그의 『錦南漂海錄』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公의 私적으로 濟州를 왕래하다 풍랑에 표류되어 행방불명이 된 자도 수 없이 많았지만 마침내 살아 돌아온 자는 백에 하나 둘 될까말까 하다'<sup>24)</sup>고 썼다.

예로부터 濟州人은 바다와 함께 살 수 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풍랑에 이름도 없이 사라져 갔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1828년 당시 日本에 와 있던 독일인 의사 시볼트가 기록한 글에 더욱 자세히 나타난다.

- 조선의 어민과 연안 항행선은 봄철에 불어오는 강한 북서풍에 밀려, 거의 매년 일본해안에 표류하여 온다. 일본 정부는 표류해 온 배와 사람들을 그 때마다 당시 외국인에게 허락된 유일한 거류지였던 나가사키(長崎)에 이송하여 일본과 조선의 외교 및 교역을 담당하고 있던 쓰시마후(對馬候)의 보호와 비용으로 특정한 장소에 수용한다. 그들은 나가사키에서 쓰시마를 거쳐 고국으로 송환된다. 그러므로 나가사키에서는 종종 조선의 어민이나 뱃사람, 상인들이 처자를 거느리고 여러 가족이 함께 도착하는 광

23) <書李邦翼事> '其父子遠遊異國亦可異也'

24) <錦南漂海錄> '我國人 爲公爲私 往來濟州 或遭風無去處者 不可枚悉 終能生還者 十百僅一二'

경을 볼 수 있다.<sup>25)</sup>

이방익 같은 사람은 살아서 돌아왔고 또 바다 위의 풍랑을 제외하면 그의 歸路는 순탄한 편이었다. 또 자신의 체험을 〈漂海歌〉로 남겼으니 사정이 좀 나은 형편이었다.

시블트에 의해 그나마 행적이 알려지게 된, 1828년 3월 17일 日本 나가사키 앞바다에 있는 데지마(出島)에서 세 척의 배로 난파당한 36명의 全羅道 출신 어민들이 시블트에게 들려준 노래는 다음과 같은 민요였다.

○Siéi-siang ui jal mún kósi kômo pas kui ta si óp nai dsôi mis tai  
dsúl lul nai ja man kiéng ku mul ma dsa nos ko kos po ko us nun  
na pui lal dsa pu lia ko.

(세-상에 알린 것이 거모(미)밖에 다시없네 제 밑에 줄을 내야 만경 그  
물 뚫어놓고 꽃보고 웃는 나비를 잡으려고.)

이 단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先人들의 삶에 겨운 일면을 엿보기 충분하다. 이들은 自笑섞인 어투로 세상사를 민요 한 가락에 담아 노래했다. 다행히도 이방익은 자신의 회한한 체험을 일정한 문학적 양식에 담아낼 생각을 했고, 그 기록이 남아 오늘에 전한다. 漂海歌辭로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보이며, 체험한 공간적 범위도 단연 넓다. 더욱이 〈漂海歌〉는 濟州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몇 안되는 文化的 유산 가운데 하나이며, 나아가 한국문학의 소중한 歌辭작품이다. 이러한 국문학 작품이 널리 알려져,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本稿의 목적은 달성된 셈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正祖때의 한 武人이었고 濟州人이었던 李邦翼의 체험과 기행의 문학, 〈漂海歌〉를 충실히 이해하고자 시선을 다각적으로 두었다. 의도와는 달리 산만한 논의가 된 느낌이다.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나친 중요한 특성들도 있겠고, 일부러 남긴 문제도 더러 있는데 이는 연관있는 다른 작품

25) 柳尙熙 譯, 《시블트의 朝鮮見聞記》, 博英社, 1987, p.1.

들과 같이 검토하거나, 유형별 특성을 체계화하는 자리에서 보완해 가기로 한다.<sup>26)</sup>

---

26) 〈漂海歌〉가 여정을 기본 줄거리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紀行文學에 포함하여 다루거나, 그 소재나 배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海洋文學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漂海歌〉는 엄연히 歌辭로써 장르적으로 귀속된다. 歌辭는 율격적 보편성과 장르적 관습성으로 인해 그 진술양식이 다양하게 실현화될 개연성이 있으므로(金學成: “歌辭의 장르性格再論” 및 “歌辭의 實現化過程과 近代的 指向”, 《國文學의 探究》,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87. 참조) 좀더 시각을 巨視的으로 두어 가사의 장르적 성격변모의 복합성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